

"아주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을 소개합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장봉희

1994년 개원 때부터 설치된 감염관리실은 현재 1,185병상 상급종합병원의 감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7명의 감염관리 의사와 8명의 감염관리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매주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순회활동을 실시하여 원내의 감염관리를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은 환자 안전을 위하여 병원의 감염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여러 부서와 연계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여 병원신입평가, 의료기관인증평가, JCI인증(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에서 우수한 결과를 획득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의료원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원내 감염관리 활동

1994년 감염관리기준서를 제정한 이래로 6차례 개정하였으며, 인트라넷에 직원들이 업무 중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매년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전 직원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전체 병상의 14%를 차지하는 집중치료실의 의료관련감염감시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감염예방번들 체크리스트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해 담당 의료진에게 동영상자료를 이용한 교육과 실습을 시행하였으며, 각 집중치료실과 함께 컨퍼런스와 협의를 거쳐 보다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술부위감염 예방을 위해 외과 전공의, 인턴, 외과 PA, 수술실 신입간호사 전수에게 <외과적 손위생 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수술실 근무 전에 수술실을 견학하고 외과적 손위생 강의와 실습 후, 감염관리실과 수술실 교육자가 피교육자의 개별 수행도를 일대일로 관찰, 평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연계 감염관리 활동

아주대학교병원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을 수차례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경기남서부 권역 중심병원으로 선정되어, 6개 참여병원과 함께 4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샵, 포스터 전시, 체험부스, 퀴즈대회로 구성된 감염관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참여병원 간 사례 공유와 상호 자문으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활동을 정립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7월에는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신종감염병(MERS) 즉각대응팀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외과적손위생 인증제 시행>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행사>



<감염관리행사 체험부스 운영>

2018년에는 3주기 국내인증평가에 대비하여 원내 감염관리 활동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병원 및 공중보건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감염관리 활동에 노력하고자 합니다.